



“연기가 나의 첫 일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정소민의 꿈 이야기 ▶12면

학창시절 모범생이었고, 부모의 뜻을 거스른 적도 없었던 정소민은 연기자의 꿈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꿈을 향한 강한 목표의식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꿈을 이룬 지금, 때때로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 이기에 좌절도, 두려움도 없다.

정소민



쑥스러운 1승

E-1 챔피언십 북한전 자책골로 1-0 이겼지만 웃지 못하는 신태용 감독



두꺼운 수비벽에 태극전사들은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 상대 자책골에 진땀을 거두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진성욱(사진 오른쪽)의 활발한 움직임이 아니었다면 더욱 답답할 뻔 했다. 도쿄 1 뉴스



고봉준의 여기는 도쿄

이재성·이창민·고요한 활발한 움직임
문전 패스미스·슛 연결 마무리 아쉬움
A매치 데뷔 진성욱, 공격옵션 재발견
16일 일본과 우승 놓고 마지막 한판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자 그토록 기다리던 승리가 찾아왔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이 '2017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거두고 대회 2연패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12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한전에서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겨 중간성적 1승1무를 기록했다. 9일 중국전(2-2)에서 다짐은 승리를 놓쳤지만 이날 승리로 우승의 희망을 키웠다. 지독히도 득점 운이 따르지 않았다. 어렵게 만든 골 찬스에서 공이 연달아 골대를 빗겨나갔다. 골대도 때

렸다. 그러나 상대의 어이없는 실수 덕분에 승리를 낚아챘다.

신태용 감독은 10월 해외파 주축의 유럽 원정에서 선보였던 스리백을 다시 들고 나왔다. 동시에 중국전에서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인원을 대거 주전 라인업에 포함시켰다. 권경원(대전 취안젠)~장현수(FC도쿄)~정승현(사간 도스)이 문전을 지켰고, 김진수(전북 현대)~정우영(충청 리판)~이창민(제주 유나이티드)~고요한(FC서울)이 중원을 책임졌다.

관심을 모은 공격진은 기존과 달리 세 선수가 짐을 나눠졌다. 이날 경기가 A매치 데뷔전이었던 진성욱(제주)이 전방에 있었고, 김민우(수원 삼성)와 이재성(전북)이 양 날개를 맡았다.

북한은 9일 일본전(0-1 패)처럼 두꺼운 수비벽을 다시 세웠다. 일본전보다 더욱 철저히 문을 걸어 잠갔다. 이를 잘 알고 있던 한국도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빈틈을 찾았다. 이재성, 이창민, 고요한 등이 쉽지 않은 중원을 누비며 기회를 엿봤다.

다만 마무리가 완벽하지 못했다. 문전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번번이 끊겼다. 더불어 상대수비를 끌고 나오게 만드는 과감한 시도도 부족했다.

1승을 향한 투지는 초반부터 발휘됐다. 운이 따르지 않을

뿐이다. 전반 22분 김민우가 오른쪽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이어받아 왼발 슛으로 연결했지만, 수비벽에 막혔다. 6분 뒤엔 이창민이 문전을 단독으로 돌파해 몸을 날리며 공을 때렸지만 골대 옆을 살짝 빗겨나갔다.

전반 37분에는 진성욱의 발리슛이 또 다시 골문을 외면했다.

후반 역시 흐름이 비슷했다. 다만 좀처럼 북한의 수비공간이 넓어지면서 우리 선수들이 자주 빈 공간을 파고들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 북한이 흔들렸다. 이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후반 19분 김민우가 올린 크로스가 북한 수비수 리영철의 발끝을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승기를 잡은 신태용 감독은 곧바로 추가 승부수를 띄웠다. 김진욱(전북)과 이명주(서울)를 동시에 투입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북한 역시 후반 중반부터 3명을 연달아 교체해 반전을 노렸지만 한 번 기울어진 추는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1승1무(3득점·2실점)의 한국은 같은 날 중국을 2-1로 꺾고 2연승을 내달린 개최국 일본과 16일 오후 7시15분, 대회 2연패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을 놓고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

▶관련기사 2면 shutoff@donga.com



2017동아시아스포츠대상을 수상한 여자 프로골퍼 이정은 60이 대방건설과 2020년까지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세 출판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새 등지 찾은 이정은

대방건설과 3년 계약...KLPGA 최고대우

2017동아시아스포츠대상에서 여자골프부분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KLPGA의 '핫식스' 이정은(21)이 새로운 등지를 찾았다.

2017시즌 KLPGA 6관왕으로 화려한 시즌을 보낸 이정은6은 12일 대방건설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까지 3년이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계약금 외 인센티브 등은 KLPGA 최고대우 후원계약"이라고 매니지먼트 회사는 밝혔다. 대방건설은 "지금껏 보여준 실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고 계약을 확정했다. 향후 LPGA 진출 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은6은 2016시즌 신인왕을 차지한 뒤 2017시즌 해성처럼 나타나 한국여자프로골프를 뜨겁게 만들었다. 2017년 KLPGA 국내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MY 문영 킨즈파크챔피언십,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을 우승하며 시즌 4승을 차지했다.

이번 시즌까지 토니모리와 계약이 남아 있던 이정은6이 엄청난 활약을 하자 많은 기업들이 스폰서십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대방건설은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며 스킨십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6은 "2017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올 한해 아껴 주신 팬 분들께 받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주신 만큼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고 싶다. 대방건설에서 나의 가치와 존재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좀 더 이정은만의 골프를 통해 성숙하고 프로다운 모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등록번호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015-9900